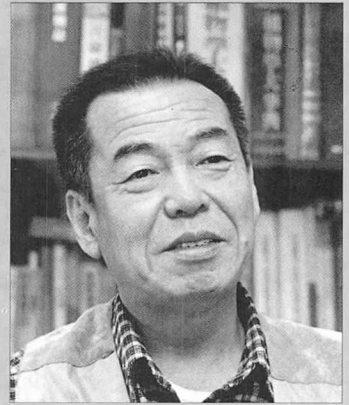


들꽃과 동고동락해온 반평생

한국야생화연구소 김태정 소장

한국야생화연구소 김태정 소장은 김정호의 후예다. 무인도부터 비무장지대 지뢰밭까지 가리지 않고 국토를 살살이 뒤지며 식물들을 기록한 열정은 조선 후기의 위대한 지리학자와 닮았다. 국토에 자생하는 야생화를 찾아 떠든 30여년 동안 그의 손과 입을 빌려 제 이름과 존재를 세상에 알린 야생화만 해도 6천여종에 이른다. 50여종에 이르는 그의 도감은 발로 그린 '야생의 지도'다.



김태정 소장

'야생화 박사' 김태정 소장(59, 한국야생화연구소)에게는 집이나 사무실이란 개념이 없다. 그에겐 들꽃이 피어 있는 전 국토가 자신의 거처다.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쯤 '공식' 처소에 들를까 말까, 나머지는 제주도부터 백두산까지 들꽃이 자라는 곳에서 동가식서가속한다. 지난달 말에도 전남 고흥의 봄꽃을 탐사하고 돌아왔다.

반평생 야생화 지킨 야인

그가 야생화와 인연을 맺은 것은 열일곱살 무렵. 마을의 이웃 할아버지가 달여준 열매를 먹고 병을 치유한 것이 계기가 돼 식물의 위대함을 깨달았다. 1972년부터 야생식물 연구에 본격적으로 입문했으니, 그는 반평생 야생화를 찾아 발품 팔면서 전국을 떠돈 셈이다. 지난 1987년에는 민통선 북방지역 자연자원 학술조사단으로 참가했고, 1990년에는 백두산의 식물생태를 조사했다. 지난해 실시된 독도 생태조사에서는 독도에서 민들레, 왕호장, 개간맹이 등 3종의 식물이 야생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전국에서 제 발길 닿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나 무인도, 휴전선 일대의 지뢰밭, 백두산까지 이제는 손금 들여다보듯 환합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계절에 따라 식물의 개화기, 결실기 등이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한번 조사했던 곳이라도 수십번씩 다시 찾아야만 그 지역의 식물생태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조선후기의 지리학자 김정호와 김소장은 여

러 면에서 닮았다. 사대부나 학자들처럼 책상머리에 앉아서 지리와 자연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성을 중시한다는 점이 첫손으로 꼽힌다. 그리고 투철한 기록정신도 닮았다. 김정호가 붓으로 우리 국토의 지세와 지형을 기록했다면, 김소장은 문명의 도구인 카메라로 자연의 생태를 포착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김소장에게 카메라는 제2의 신체와 다름없다. 1970년대부터 야생화를 찾아나설 때마다 그의 곁에 처하는 없을지언정 카메라는 있었다. 카메라가 꼭 필요한 작업공구긴 해도 애첩 다루듯 애지중지하는 것은 아니다. 비싼 고급 카메라도 그의 곁에선 2년을 채 못 버틴다. 매년 적게는 5만 컷에서 많게는 7만컷을 찍어대니 배겨낼 카메라가 없는 탓이다.

"야생화 사진을 찍을 때마다 촬영일자와 지명은 꼭 기록합니다. 꽃이름이나 분류 등은 굳이 적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 있기 때문이죠. 많이 버렸는데도 백만여컷의 슬라이드 자료를 모았습니다. 1997년도부터는 디지털 캠코더로 야생화를 약 2천시간 넘게 촬영했습니다.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 분류할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실증성과 정확성으로 차별화된 식물도감 펴내

야생화를 향한 그의 열정은 50여권에 이르는 책으로 정리됐다. 《한국의 야생화》(교학사),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꽃 백가지》(현암사), 《어린이 식물도감》(예림당) 등의 도감을 비롯, 에세

이집 《들꽃세상에 뽀뽀 없다》(집현전)와 그가 감수한 강희안의 《양화소록》(늘와) 등이 그 성과물이다. 그의 도감은 실증성과 정확성에서 다른 식물도감과 차별화된다.

"식물도감의 생명은 정확성에 있습니다. 식물의 분포지와 개화기 및 결실기 등이 정확해야죠. 또한 식물의 생태적 특성, 형태, 용도, 그리고 지방마다 달리 부르는 속명, 약명 등도 기록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을 문헌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발로 뛰며 기록했습니다. 야생화 사진에서는 미적인 요인보다는 실물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야생화는 약 6천여종이다. 이 가운데 4,500여종이 자생종이고 나머지는 외래종이다. 그는 우리나라 야생화의 특징으로 꽃의 크기가 작고 중간색이 많으며 향기가 진하다는 점, 그리고 외래종도 잘 자란다는 점을 든다. 선조들이 우리나라를 금수강산이라 부른 것은 식물의 성장조건이 뛰어난 것을 일러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소장의 꿈은 두가지다. 빨리 남북이 통일돼 북한의 야생화 생태답사에 나서는 것이 그 하나요, 또 하나는 '자연생태박물관'을 여는 것이다. 통일의 꿈이야 한 개인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두번째 소원은 내년쯤 실현될 듯하다. 양평의 한강변에 6만여평의 터를 마련해 지난해부터 준비에 들어갔다. 야생화뿐만 아니라 곤충, 민물고기 등도 모아 야생의 무릉도원을 지상에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 박천홍 기자